DAILY
MARKET
VIEW

주식시장 투자전략

Global Market Analyst **민병규**
02-3770-3635 / byungkyu.min@yuantakorea.com

2022.5.23

실적에서 확인된 물가의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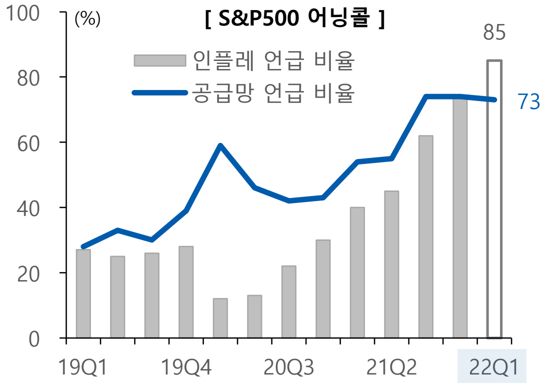
1. 경기방어적 대안에서 탈락한 미국의 필수소비재

- 미국의 고물가와 실질구매력 하락이 소비재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확인. 지난주 기대치를 대폭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Target의 주가는 당일에만 -24.9% 급락.

- 1분기 실적 시즌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토로한 기업들의 비중은 2010년 집계 후 최고치인 85%로 급증. '공급망'을 언급한 기업의 비중도 73% 수준.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더 높아진 양상.

1Q 어닝콜에서 인플레 언급 비율이 추가 급등한 미국.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반응



자료: Factse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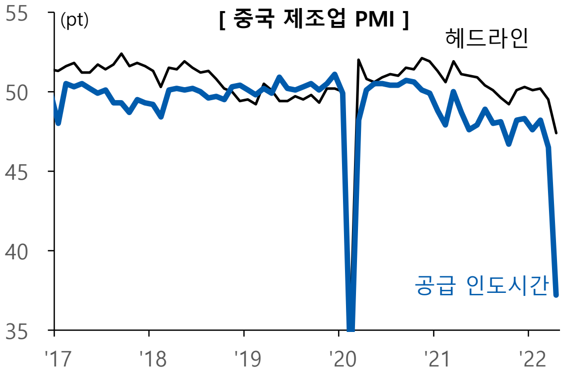
2. 재약화된 글로벌 병목 현상. 정점은 지나는 모습

-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지표들의 상승세가 재개되는 모습.

- 다만 5월 집계에서 확인되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정점을 지난 양상. 확진자 수가 급감한 상해는 지난 주말 일부 지하철과 버스 노선의 운행을 재개.

- 봉쇄 조치의 성과가 확인되면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은 개선될 여지. 그러나 글로벌 supply chain에서의 중국의 위치와 시차를 고려할 때 당분간 높은 물가 압력은 유지될 가능성.

봉쇄 조치로 급락했던 중국의 물품 인도시간.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점을 지난 모습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경기방어적 대안에서 탈락한 미국의 필수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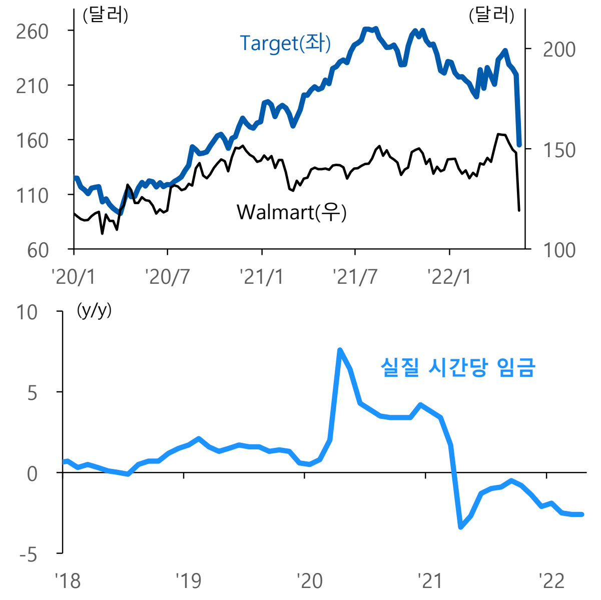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경기방어주의 성격을 가진 필수소비재 기업들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1분기 실적시즌을 지나면서 고물가와 실질구매력 하락이 이들 기업에 미친 영향이 여실히 확인됐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대표 소매 할인점인 Target이 기대치를 대폭 하회하는 실적(컨센 3.06달러, 실제 2.19달러. YoY -47.5%)을 발표했다. Target의 주가는 당일에만 -24.9% 급락했고, 동종 대표기업인 Walmart의 주가도 -6.8% 하락(전일 -11.4%)했다.

1분기 실적 시즌에 인플레이션 부담을 토로한 기업들의 비중은 2010년 집계 후 최고치인 85%로 급증(S&P500 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망'을 언급한 기업의 비중도 여전히 73%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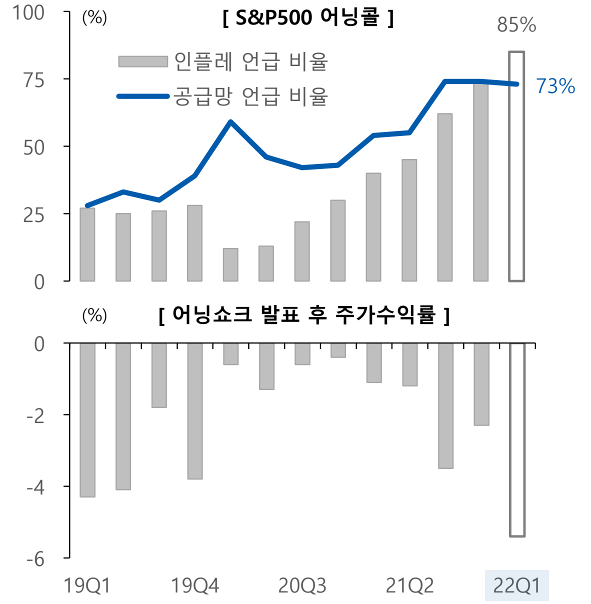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 결과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더 높아진 양상이다. 1분기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평균 주가수익률은 -5.4%(실적발표일 D-2~D+2 수익률)로, 평년보다 강한 징벌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차트1] 경기방어적 대안으로 여겨졌던 필수소비재. 물가 상승의 여파가 극명하게 확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1Q 어닝콜에서는 인플레 언급 비율이 추가 급등.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반응.



자료: Factset,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재악화된 글로벌 병목 현상. 정점은 지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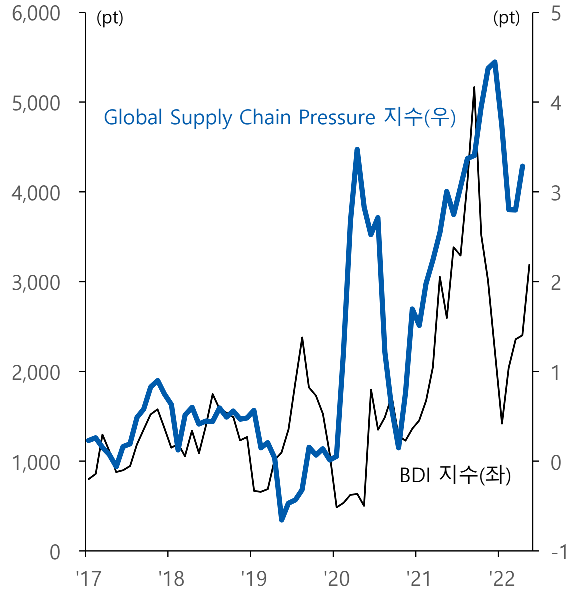
중국의 강경한 봉쇄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지표들의 상승세가 재개되는 양상이다. 정점을 통과했던 뉴욕 연준의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는 4월 상승 반전, BDI 지수는 지난주 연중 최고치로 상승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상해)이 위치한 중국의 '제조업 PMI - 공급 인도시간'은 봉쇄 조치의 여파를 반영해 3월 46.5pt에서 4월 37.2pt(-9.3pt)로 급락했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조치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의 재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5월 집계에서 확인되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점을 지난 양상이다. 상해의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4월말 1.28만명에서 지난주 482명으로 급감했고, 주말에는 일부 지하철과 버스 노선의 운행이 재개됐다. 6월부터는 단계적인 봉쇄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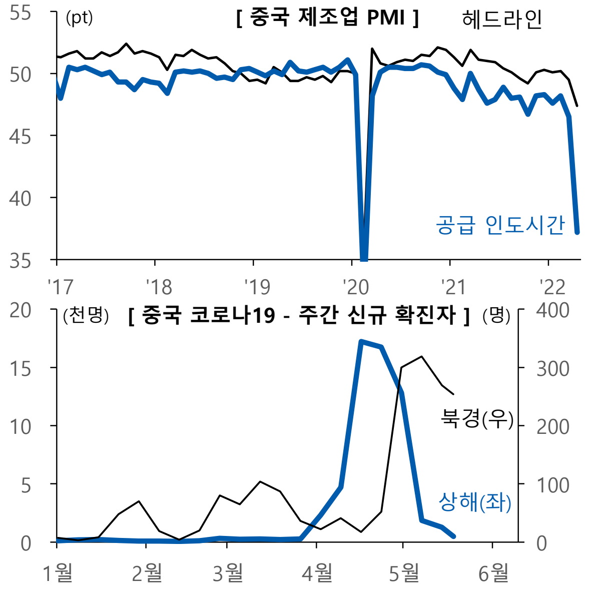
봉쇄 조치의 성과가 확인되면서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supply chain에서의 중국의 위치(원자재 수입→제조→중간재/완성품 수출)와 시차를 고려할 때 당분간 높은 물가 압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차트3] 4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재차 상승. BDI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봉쇄 조치로 급락했던 중국의 물품 인도시간.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정점을 지난 모습.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